

영역 | 동아리활동

## 불교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따라 ‘다시 보는 대구·경북 역사’ <책 쓰기 활동 기반>

최선희(심인고등학교)

### 1. 참가 학생

가. 동아리 명 : Piece Maker

나. 동아리 소개 : 우리 심인고 ‘Piece Maker’는 우리 지역 다시 보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진행된 ‘불교의 시작, 모래 마을을 찾아서’라는 문화 답사 이후,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 쓰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야심차게 결성된 자율동아리입니다.

3개의 팀이 각각 하나의 큰 Puzzle을 함께 맞춰가는 Piece Maker로 활동한다는 목표로

1팀(one piece) - 세대 공존을 위한 공감과 이해 ( ‘할머니와의 인터뷰’ )

2팀(inner piece) - 종단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불교를 이해를 바탕으로 둔 성장소설 쓰기 ( ‘절로 행복해지는 10대’ )

3팀(cool piece) - 여동생에게 들려주는 우리지역 독립운동가 이야기

위의 주제로 함께 연구하고 토의하며 나누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모두 담아 책으로 출판하여 지금의 ‘나’, ‘우리’, ‘우리 지역의 소중한 것’ 들에 대한 기록자가 되고자 합니다. 2021년 학교가 달성군으로 이전하며 우리는 오랜 터전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곳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기획한 대구-경북 다시보기 프로젝트 활동 중 5월에 지역 문화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불교 종단학교학생으로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와 우리, 나아가 우리가 사는 곳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불교가 전해지고 시작된 장소인 모래마을의 ‘모래정’을 답사의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직접 제작한 답사 자료집으로 함께 공부하고, 직접 체험한 것이 책 쓰기 활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율동아리 ‘뿌리 깊은 나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 필요성 및 목적

가. 학생주도형 지역 탐구·체험 활동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 창체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다양한 학교 급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다. 학생들이 탐방 후 지식과 감상을 글로 표현하여 책으로 엮어낼 수 있는 책쓰기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지역탐방 및 역사 책 쓰기의 장을 열 것이다.

라. 타 학교와 연대, 융합할 수 있는 융합 교육활동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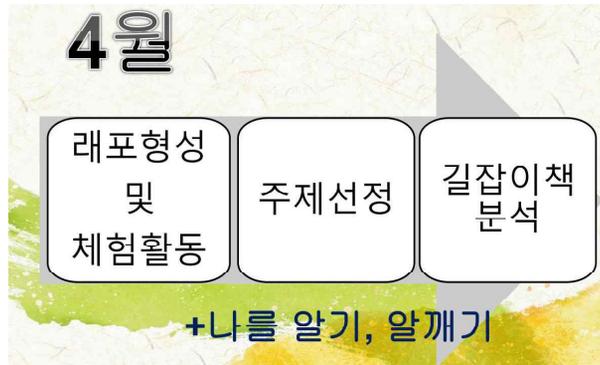
### 3. 동아리 활동 설계 및 운영

구분		활동 내용	활동 방법	연계 교과
차시	단계			
1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경북 다시보기 활동’, ‘책 쓰기 활동’의 필요성 이해</li> <li>- 대구 경북 다시 보기 활동의 의미 이해하기</li> <li>-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알기</li> <li>- 책 쓰기 활동의 의미 알기</li> </ul>		한국사, 독서, 화법과 작문
1	지역문화 답사 및 후속 활동	• 5월, 구미 모레마을 답사	답사	한국사, 종교, 철학, 화법과 작문, 독서
2		• 불교 관련 도서, 자료 탐색, 특강 듣기	특강 및 세미나	
3		• 팀별 책 쓰기 활동 콘텐츠 선정 및 계획 세우기		
4	책 쓰기 활동 및 책 축제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시간 및 온라인 플랫폼 자작 자작 활용한 책 쓰기 활동 진행</li> <li>• 대구광역시 교육청 책 축제 참가 (부스 운영)</li> </ul>	자작자작 플랫폼	
5	출판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 프로젝트- 독립운동 길 건너 프로젝트,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독립운동가 이야기, 학생 독립운동 기념 굿즈 만들기</li> <li>• 활동 마무리 및 최종 원고 편집</li> </ul>	추가 답사	

### 4. 동아리 활동 자료



가. 모든 책 쓰기 활동은 ‘나’ 와 관련 짓는 것에서 시작된다 - (별첨 활동지 참고)



나. 드디어 우리만의 주제 프로젝트 진행 단계 돌입!



- 1) 세대 공존을 위한 세대 공감 - 지역 문화 답사에서 모래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할머니와의 인터뷰 시간을 통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소통할 필요성을 느낀 우리! 즐거웠던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지역, 나의 주변 ‘사람’에 대해 기록하는 Piece Maker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 2) 절로 행복해지는 10대- 건조한 건우의 하루가 건강한 건우의 하루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 대구- 경북 지역 사찰을 타임 슬립으로 여행하며 10대가 겪는 삶의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비법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 3) 너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여동생에게 친절한 오빠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들려주겠다는 포부를 안고 5월을 지나 8월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에 대해 공부하였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이자, 우리학교 2학년 학생회장인 디마의 주도로 책쓰기 활동은 물론, 독립운동길 걷기 책트,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홍보를 위한 굿즈 제작, 캠페인까지 직접 기획하였고, 남다른 노력이 고스란히 담기, 지금까지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만의 시선으로 잊어서는 안되는 그들을 위한 기록자가 될 것이다.

		
<p>지역문화 답사 - 초전지 모례마을 전통의상체험</p>	<p>팀별 회의 및 김O연 선생님 책 쓰기 특강</p>	<p>지역문화 답사 -할머니와의 인터뷰</p>
		
<p>여름방학 - 도서관을 뜨겁게 달군 열정 뽀뽀 책쓰기 회의 (O희쌤과 2조)</p>	<p>자율학습시간도 반납 -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이해하기 특강’ (열정뽀뽀 지도쌤들과 3조)</p>	<p>세대 공존을 위한 세대 공감, 이해 - 진부하지 않은 글을 쓰기 위한 회의,또 회의 (O경쌤과 1조)</p>

1조는 지역문화 답사에서 할머니와의 인터뷰시간을 가지면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 세대공감이라는 큰 주제를 뽑아 우리 지역 다시보기의 -사람 부분을 맡아 '세대공감 비법서'를 쓰게 되었고, 2조는 사찰들과 그에 얽힌 설화를 공부해보면서 스토리를 구상했는데 10대인 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나 자신과 연결지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건우라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 각 사찰을 여행할 때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있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설정으로 '건우'라는 우리를 대표하는 주인공이 직접 하나의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시간여행을 하게되는 스토리로 소설'절로 행복해지는 10대'를 썼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회의를 하면서도 '절로 행복해지는 10대'를 아이디어로 내면서 사찰을 여행하니 '절'이 들어가면 좋겠고 '저절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 중의적 의미를 살린 최고의 제목이라며 박수치던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3조는 나, 그리고 나와 함께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곳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 지역 독립운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길 다시건기 프로젝트까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의 기록을 남겨주고싶다는 바람을 담아, 결국 우리는 각자 한 사람씩 모두 기록자이고,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피스 메이커(piece maker),가 되어 '너(여동생)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피스 메이커'란 3개의 조가 각각 전체 팀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조각이기도하고 각 조의 조원들 한 명 한 명도 한 사람의 기록자이자 한 조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조는 딱딱할 수 있어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동생한테 들려준다는 문체 설정으로 좀 읽기 편하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 5. 동아리 활동 결과물

#### 가. 자작자작 플랫폼 책 쓰기 활동

<p>가장 멋진 순간 역사 소프트리얼링 해스키링 학생들의 공연입니다. 일찍이 2021년 12월 27일 20:40:00 동아리 139</p> <p>대구-경북 독립운동가 재조명(신화범 박라거즈) 대구-경북 역사 열기 해스키링(이거즈) 세태공관 역사 해스키링 쓰는 사람, 오해를 기뻐하다. 역사 포토제네 사람의 역사 대구-경북의 독립운동-역병-학생</p>	<p>5월 14일 구미 문화 답사 박물관 ... 모여마을 어른신과의 대화 &gt; 사람의 역사</p> <p>출발시간 22. 5. 14. By.왕성준</p> <p>참석자 10:00:00 의미있게 봐도 돼요. 짐서 뒤에 한 도로 불게요 뒤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쪽 거동이 뭐라고 써 있나요. 저쪽 거동에 있으니까 한편 국 읍 사람 라일 불할 그런 어쪽 어쪽에 복사물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꽃이예요. 복숭아꽃... 영문구개</p>	<p>모여마을 어른신과의 대화 22. 5. 14. (20: 20: 21 수요일)</p> <p>인디양반 특집본을 한글 문서화해서 정리에 서 올려주세요. 사후리를 수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명왕리에서 오미가 나가니 책자에 맞게 변환된 글은 적절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환에 문제가 없다면, 발사를 떠올리면서 해기아이 내용을 다음에 주기 바랍니다.</p>
<p>소통 공간- 자작자작</p>	<p>자작자작 온라인 책 쓰기 활동</p>	<p>선생님과 피드백 주고받기</p>

#### 나. 책 축제 부스 운영

<p>2022 책축제 부스운영</p>	<p>중간 보고회</p>	<p>표지 디자인 회의</p>

#### 다. Cool piece-독립운동 길 걷기, 자료집 제작 활동

##### 1) 독립 운동 길 걷기

<p>독립운동 길 걷기 이상화 고택</p>	<p>독립운동 길 걷기</p>	<p>독립운동 길 걷기 -이상정 생가-</p>

2) 인물 자료집 제작

이상정 (李相定, 1897~1947)	대구 출생. 본관은 ‘경주(慶州)’. 호(號)는 ‘청남(淸南)’, ‘산은(汕隱)’. 다른 이름으로 ‘이직문(李直文)’, ‘이연호(李然皓)’. 시인 이상화의 친형. 독립장(1977).
생가지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25-1(계산동 2가 90), 마보주막.



이상정은 우현서루, 동경 세이조〔成城〕학교 및 고쿠가쿠인〔國學院〕대학을 거쳐 수학함. ⇨ 21세~23세 때 이상정은 대구 계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함(1917~1919). ⇨ 25세 때 이상정은 대구에서 서양화 개인전람회를 개최함(1921). ⇨ 26세 때 이상정은 《개벽(開闢)》 7월호와 8월호에 시조를 발표함(1922). ⇨ 27세 때 이상정은 ‘벽동사’라는 미술연구소를 설립함. 이상정은 제2회 대구미술전람회에 서양화 18작품을 전시함(1923). ⇨ 28세까지 이상정은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 서울의 경신학교 등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침(1924). ⇨ 29세 때 이상정은 대구에서 조직된 용진단(勇進團)의 위원장으로 활동함(1925). ⇨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 이상정은 하얼빈 근처의 한국인 학교를 맡음. ⇨ 30세 때 이상정은 하북성 장가구에서 유동열 부부와 신영삼(申榮三)이 운영하는 병원에 기숙함. 이상정은 풍옥상의 항공대에서 복무하던 권기옥을 만나서, 유동열 부부 등을 모시고 간단한 혼례식을 거행함(1926). ⇨ 32세 때 이상정은 권기옥, 손두환 등과 함께 공산당 혐의로 중국 관헌에 체포되어 남경 일본영사관에 넘겨졌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됨(1928). ⇨ 33세 때 이상정은 서주 주둔 중국국민당 정부군 사단 훈련처 책임자로 배속되었다가 며칠 만에 휴가를 내는 형식으로 사임하고 남경으로 돌아옴(1929). ⇨ 35세 때 이상정은 상해에서 거행된 홍사단 제17회 원동대회에 참여하여 기부금을 납부함(1931). ⇨ 36세 때 이상정은 남창항공협진회(南昌航空協進會) 위원을 맡음(1932). ⇨ 38세 때 이상정은 항주에 소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경상도 의원으로 보선되었으나 임시의정원 회의에 불참함(1934). ⇨ 40세 때 이상정 부부는 일본의 간첩이라는 모함을 받아 8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됨(1936). ⇨ 41세 때 이상정은 동생 이상화를 만나, 약 3개월 동안 이상화를 데리고 남경과 북경 등지를 여행함. 이상정은 좌파세력의 결집체인 조선 민족전선연맹 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선언문을 발표하고 통일문제 간담회를 개최함. 이상정 부부는 조선민족혁명당 당원으로 김원봉과 함께 곤명으로 이동함(1937). ⇨ 42세 때 이상정은 상교(上校)로 임관하여 육군참모학교의 교관을 역임함. 이상정은 소장(小將) 교관으로 승진하였으며 화중군사령부(華中軍司令部)의 막료를 겸함(1938). ⇨ 45세 때 이상정은 육군참모학교에서 유격대 훈련학교 소장교수(小將教授)로 활동함(1941). ⇨ 46세 때 이상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외교연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임시의정원 경상도 의원에 선출됨. 이상정은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제2과위원회 위원을 선임됨(1942). ⇨ 47세 때 이상정은 임시의정원 제2분과위원, 임시의정원법개정위원, 제1과위원장 등으로 활약함. 이상정은 국무회의에서 권기옥과 함께 공군설계위원에 선임됨(1943). ⇨ 48세 때 이상정은 외무부 외교연구위원, 임시의정원 제4분과위원에 발탁됨. 이상정은 한국광복군준승행동9개항을 취소하고 중국과 평등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함(1944). ⇨ 49세 때 이상정은 신한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고 홍사단 예비단우로 입단함(1945). ⇨ 50세 때 이상정은 해방 후에 즉각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상해로 자리를 옮겨 한인의 권익 보호에 진력함(1946). ⇨ 51세 때 이상정은 모친상을 맞아 귀국하였다가 뇌일혈로 숨을 거둠(1947).



### 이상화와 현진건

 <p>☞ 이상화 (1901~1943) 〈나의 침실로〉 (192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 애족장(1990).</p>			<p>☞ 현진건(1900~1943) 《운수좋은날》 (1924) 《B사감과러브레터》(1925) 《선화공주》(1941, 미완) 대통령표창(2005).</p>	
가정 사숙에서 백부 이일우의 가르침으로 수학하다가 경성 중앙학교에 입학함.	1915	대구 처가에서 신혼 생활을 하다가 경성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함.		
백기만, 이상백, 현진건 등과 함께 동인지 《거화》를 발간함.	1917	백기만, 이상백, 이상화 등과 함께 동인지 《거화》를 발간함.		
경성 중앙학교 3년을 수료한 후에 귀향하였고, 금강산 일대를 둘러봄.	1918	현정건을 찾아가고자 상해로 옮겨 호강대학 독일어 전문부에 입학함.		
3.1운동 당시 대구에서 학생운동을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로 서울로 피신함.	1919	귀국하여 육군 영관을 지낸 당숙 현보운에게 입양되어 경성에서 생활함.		
	1920	《개벽》 11월호에 〈희생화(犧牲花)〉와 번역소설인 〈행복〉을 발표함.		
현진건의 소개로 월탄 박종화와 만나서 《백조》 동인이 됨.	1921	《개벽》 1월호에 〈빈처〉를, 《개벽》 11월호에 〈술 권하는 사회〉를 발표함.		
《백조》 1·2호에 〈말세의 회탄〉, 〈단조〉, 〈가을의 풍경〉 등을 발표함.	1922	《개벽》 1~4월호에 〈타락자〉를, 《백조》 2호에 〈피아노〉를 발표함. [동명]에 입사함.		

《백조》 3호와 《동아일보》에 〈나의 침실로〉, 〈이중의 사망〉, 〈마음의 꽃〉, 〈독백〉을 발표함.	1923	《백조》 3호에 〈할머니의 죽음〉을, 《동아일보》에 〈우편국에서〉를 발표함. [시대일보]에 입사함.
대구의 문우들과 담론을 나눔. 의열단 부단장인 이종암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됨.	1927	
이상정을 만났다는 이유로 수감됨. 교남학교에서 무보수로 영어와 작문을 가르침.	1936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탈소 사건에 의해 1년간 복역함.
말형 이상정을 만나러 중국으로 건너가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옴.	1937	
4년여 동안 교남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교남학교에서 물러남.	1940	《동아일보》에 장편 〈흑치상지〉를 연재하다가 중단됨. 《조선의 얼굴》은 금서 처분당함.
대구광역시 계산동 2가 84번지 자택에서 위암으로 사망함(4월 25일)	1943	무남독녀 ‘화수(和壽)’를 박종화의 아들 박돈수와 혼인시킴. 장결핵으로 사망함(4월 25일)

권기옥과 현계옥

	<p>☞ 권기옥(1901~1988) 평남 중화에서 출생함. 비행사 출신 이상정의 아내. 독립장(1977).</p>		<p>☞ 현계옥(1897~미상) 경남 밀양에서 출생함. 기생 출신. 현정건과 연인. 현재까지 미서훈.</p>	
		1913	대구 기생조합 기생으로 살아감. 독립운동가 현정건과 인연을 맺음.	
		1915	서울 한남권번으로 이동함.	
승의여학교 3학년생으로 여성비밀결사단체인 송죽형제회(송죽결사대)에서 활동함.		1918		
3.1운동으로 체포되어 구류 3주 동안 감금됨. 평양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6개월간 감옥에 갇힘.		1919	상해에서 서울로 잠입했던 현정건과 약속하여 만주로 이동해서 의열단에 가입함.	
평양청년회 여자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순회함. 대한애국부인회 탄압을 피해 상해로 망명함.		192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육기관인 인성학교 교사로 활동함.	1923	국내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의열단 김시현이 가담했던 ‘황옥사건’에 연루됨.
운남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졸업하여 한국인 최초 의 여성 비행사가 됨.	1925	
중국국민당정부 동로항공사령부 비행원과 항공서 항공 제1대 상위관찰사로 지냄.	1927	
1차 상해사변에서 항공서 제1대 소속 비행사로 임명되어 활약함.	1932	현정건이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했다가 곧 순국하자, 이후 러시아로 망명하여 행방을 감춤.
항공서 교육과 편역원과 항주 항공대, 중앙항공학교 비행교관으로 활동함.	1933	
일본 밀정이라는 모함을 받고 남편 이상정과 함께 중국 경찰에 체포됨.	1936	
중경 중국국민당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에 임명됨.	1938	
한국애국부인회 재건대회에 참여함.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산하 공군설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1947	

3)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맞이 굿즈 만들기, 심인중 방문- 재능기부 활동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11월 2일 동아리 반일제 시간을 활용해 실제 여동생들이 있는 심인중학교에서 직접 '역사특강 과 독립운동가 굿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기가 남아 있어, 12월을 활용해 그 경험을 나누고 지역 아동 문화센터까지 재능 기부 활동으로 역사특강 및 굿즈 만들기를 추가로 진행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하고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굿즈 만들기- 에코백, 태극기 보석 십자수	후배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재능기부	굿즈 만들기- 그룹톡

라. 우수 책 쓰기 활동 출판 공모전 참가- 우수작 선정(출판 진행 중)

		
<p>세대공감비법서</p>	<p>질로 행복해지는 침대</p>	<p>너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p>